

‘생태·정주 혁신’…순천, 지속가능 도시 대전환

전봇대 철거로 철새 서식지 조성

송전선 지중화…정주 환경 개선

순천시가 생태 보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에 나서고 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도시는 인구압축과 고령화,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는 이에 맞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지향해왔다.

자연이 만든 순천만습지에 인간의 정원을 더해 생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도시 대전환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는 2008년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의 안전한 월동을 위해 순천만습지 주변 농경지 일대의 전봇대와 전선을 전면 철거했다. 당시 282개의 전봇대와 1만2천m에 달하는 전선을 제거해 철새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조치는 ‘철새를 위해 전봇대를 제거한 세계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전봇대 철거 전



왼쪽부터 지붕로 구간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완료 후 도로를 개통한 모습과 순천만습지를 찾은 흑두루미들, 2008년 노관규 순천시장(가운데)이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행사에서 전봇대 전선을 자르고 있는 모습.



(순천시 제공)

167마리에 불과했던 흑두루미는 지난해 기준 7천600여 마리로 급증했다.

순천만은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 잡았고 같은 해 420만명의 생태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생태 보전에서 나아가 도시공간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해룡면 상삼사거리에서 왕지2지구

까지 6km 구간에 대한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다. 2026년 7월 최종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중에 얹힌 전깃줄이 사라지고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시민 안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중화는 단순히 도시 경관 정비를 넘어 안전 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송전선 단선

과 전봇대 전도 사고를 예방하고 정전,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지붕로 일대 고압송전로 지중화와 송전탑 철거는 주민들이 10여 년간 요구해온 숙원사업으로 순천시와 시의회, 시민들의 협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과 습지 복원 사업을 연계해 지중화 비율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투자와 관계인구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출산, 양육, 일자리, 문화까지 젊은 세대가 수도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정기자

광양꿈빛도서관…도심 속 ‘북캉스’ 명소 인기

꿈뜨락·창작체험·북아트 ‘눈길’

광양꿈빛도서관이 여름철 도심 속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어린이도서관으로 정식 개관한 광양꿈빛도서관은 임시 운영 기간이던 5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이 약 2만6천여명에 달했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찾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이 같은 인기는 조용히 책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북캉스’ 문화 확산과도 맞물려 있다.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공간은 자율 창작체험 공간 ‘꿈뜨락’이다. 80여종의 창작 재료가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꿈뜨락에서는 월별 ‘제철 재료’도 제공한다. 7월에는 종이부채 만들기 체험·전시도 진행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어린이



광양꿈빛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어린이들이 독서·창작 체험을 즐기며 활짝 웃고 있다.

(광양시 제공)

이시 쓰기 프로그램 ‘나도 어린이 운동주’ ▲보호자와 함께하는 그림책 기반 ‘편편(fun fun) 북아트’ ▲상상력을 자극하는 ‘두뇌랑 노는 아이클레이’ 등 3개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김현숙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여름철 도서관

은 쉽고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속 피서지이자 특별한 여행지”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히 쉬며 따뜻한 감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군, ‘제1기 청렴 군민 감사관’ 위촉 본격 활동

총 7명…부당 행정 건의 등

보성군은 5일 “전날 군청에서 ‘제1기 청렴 군민 감사관’ 위촉식을 열고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철우 보성군수 주재로 ▲위촉장 수여 ▲제도 안내 ▲종합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 논의 ▲군정 발전 건의 사항 수렴 순으로 이뤄졌다.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로, 군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관은 총 7명으로,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며 앞으로 2년간 군정의 감시자이자 조언자로 활동한다.



감사관들은 ▲위법·부당 행정 및 공무원 비위 제보 ▲주민 불편 사항 건의 ▲행정 제도 개선 ▲군정 발전 제안 등 군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며 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김철우 군수는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는 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 ‘은행나무농원’ 아름다운 경관상

‘쉬어가는 정원’ 최우수상

곡성군은 5일 “군민이 직접 가꾼 일상 속 아름다운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곡성군 아름다운 경관상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민간정원 등 총 16개소가 접수됐으며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1개소와 최우수상 1개소가 뽑혔다.

대상은 석곡면 ‘은행나무농원 꽃이랑 나무랑’ (사진)이 차지했다.



약 1만평 규모로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3대에 걸쳐 가꿔온 이 정원은 가족의 기념일마다

나무를 심는 전통이 이어져 깊은 울림을 준다. 8천여평의 은행나무 군락과 과실수, 정원수, 초화류가 조화를 이뤄 사계절 내내 다양한 풍경을 연출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돼 사랑받고 있다.

최우수상은 곡성읍 ‘쉬어가는 정원’이 선정됐다. 약 600평 규모의 부지에 정원수와 산책로, 쉼터 등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돼 집주인의 정성과 아름다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민이 가꾼 공간이 곡성의 경관이자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성군, 청년활동포인트제 시행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적립

장성군은 5일 “이달부터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활동포인트제는 장성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점수(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누적 점수가 1만점 이상이면 지역화폐로 쓸 수 있는 장성사랑카드에 충전해 주며,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활동은 ▲장성군·읍면 주최 축제 참여 ▲장성지역 주요 관광지 방문 ▲군 주최 교육·간담회·행사 참여 ▲장성군 공식 홍보게시물 공유 ▲장성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등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려면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증명자료 제출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야외 활동 긴 옷·장화·기피제 필수

담양군은 “최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과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4~10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고열·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며 치사율은 약 18%에 달한다.

특히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긴소매·긴바지·장화를 착용하며 기피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



을 방문해 야외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 도서지역 ‘범죄예방시스템’ 도입

스마트폰 영상전송 이동형 CCTV 구현

여수시는 5일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도서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동형 CCTV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CCTV 설치가 어려운 도서 지역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영상전송’을 누르면 현장 영상이 즉시 CCTV통합관제센터로 전송

되며 ‘긴급신고’ 시 관제센터와 통화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도 연계된다.

해당 시스템은 비령길, 탐방로 등 도서지역에 설치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대표전화(1899-1766)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 상황 전파에도 활용돼 더욱 안전한 도서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군, 신혼부부 백일해·풍진 무료 접종

장흥군은 5일 “이달부터 신혼부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선천성 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임신 중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백일해(Tdap)와 선천성 풍진 증후군 예방을 위한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신혼부부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태아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백일해는 1세 미만 영아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임신 중 예방접종을 통해 태반을 통한 항체 전달이 가능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풍진은 태아에게 청력·시력·신경계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임신 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장흥=노형록 기자